



효천 테마 독서 6학년

"용기"



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승아의 걱정〉 김소연 / 별숲

승아는 어떻게 새 학교에 적응할지, 반 애들과 선생님은 어떨지 전학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걱정과는 다르게 무사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 승아는 동네 우물집에 대한 무서운 괴담을 듣게 됩니다. 우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승아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데요. 우물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승아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다시 우물집으로 찾아갑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안녕, 우주〉 에린 엔트라다 켈리 / 밝은미래

버질, 발렌시아, 카오리, 챗은 11살 동갑내기들이지만 서로 학교도 다르고,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챗이 버질의 반려동물에게 장난을 치던 날, 네 명의 작은 우주는 충돌하게 되었고 서로 얽히게 되면서 일상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신비롭고 기묘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네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 꺼진 아파트의 아이들〉 정명섭 / 리틀씨앤틱

방학을 앞둔 어느 날, 동네 전체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신호등이 갑자기 꺼져 버려 등굣길은 엉망이었고, 학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현준이, 혜진이, 태성이는 괴짜 채모령 선생님이 운영하는 이상한 가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전기가 나간 밖과는 다르게 가게에서는 형광등도 켜지고 시원하게 선풍기도 돌아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채모령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동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거짓말 언니〉 임제다 / 그린북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갑자기 사라져버린 언니 해라를 찾으러 동생 하리는 열흘간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하리는 해결사와 친구 진제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라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서 만난 것들은 낯선 언니의 모습들뿐이에요. 이런 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리는 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게 됩니다. 해라와 하리는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